

한인디아스포라 관련 주제명표목 개선 방안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인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Korean Diaspora-related Subject Headings: Focusing on Korean-related Terminology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여 지 숙 (Ji-Suk Yeo)** , 양 기 덕 (Kiduk Yang)***
이토히로코 (ITO HIROKO)**** , 이 혜 경 (HyeKyu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인 관련
주제명 개선방안 |
| II. 한인 관련 용어 개요 및 사용 현황 | V. 결 론 |
| III. 주제명표목표 한인 관련 주제명 분석 | |

요약: 이 연구는 한인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연구에서 한인에 대한 용어를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관련 용어들을 조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KCI 등재(후보) 학술지 중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의 비율이 높은 3개의 학술지를 선정하여 한인과 관련된 용어에서 추출하여, 이 3개 학술지 논문에서 사용된 빈도를 조사한 다음, 한인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논문을 직접 보고 추가 한인 관련 용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한인 관련 주제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문표기의 변경, 비우선어의 추가, 기존 주제명의 계층관계 변경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인디아스포라, 주제명표목, 한인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improve Korean diaspora-related subject headings based on the analysis of terminology about Koreans in Korean diaspora-related manuscripts and investigation of related term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After selecting three KCI journals with high ratios of diaspora-related papers, the study extracted Korean-related terminology from the journal papers and examined their term frequencies. Additional Korean-related terms were investigated by manually reviewing the articles in which extracted terms appear.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several supplemental enhancements to Korean-related topic name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subject headings, such as changing the English notation, adding non-preferred words, and chang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of the existing topic names.

KEYWORDS: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Korean Diaspora, Subject Heading Headings, Koreans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987).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wuhaha@chol.com / ISNI 0000 0004 6485 0514)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yang@knu.ac.kr / ISNI 0000 0004 7878 6533) (교신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windjammer347@gmail.com / ISNI 0000 0005 0629 7914)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수료(keilee@knu.ac.kr / ISNI 0000 0004 9344 4179)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2년 2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3월 6일 • 게재확정: 2022년 3월 1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103-124,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1.202203.103>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향을 떠나 많은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과 그들의 민족적 이산, 거주지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뜻하지만, 이 의미가 일반화되어 디아스포라(diaspora)는 국외 거주자, 추방당한 사람,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 외국인 체류자, 이민자, 소수민족을 비유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Safran, 1991, 83). 디아스포라(diaspora)는 민족분산(民族分散) 또는 민족이산(民族離散)으로 번역되며, 같은 민족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 및 분산한 동족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1990년대부터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확장되어 다른 민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윤인진, 2004, 4-5).

키워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중심 키워드 중에 재외한인뿐만 아니라 재일한인, 조선족, 결혼이주여성, 화교가 나타나 민족 및 논문의 연구대상(사람)과 관련된 것이 하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봉언, 이채문, 2014, 61). 디아스포라가 주로 해외로 흩어진 민족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한 디아스포라 연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 거주 한인에 대한 용어는 거주 국가에서 고유하게 불리는 이름(조선족, 조선인, 고려인 등)과 함께 교포, 동포, 재외한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장윤수, 2011, 9).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해외 거주 한인에 대한 용어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관점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한인에 대한 이름을 조사하여 도서관에서 자료의 체계적인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인 주제명표목표의 보완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도서관에서의 주제명표목표는 목록작업 시 일관성 있는 주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이재철의 주제명표목표 이후 2002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는 전 분야의 표준화된 주제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주제명표목이 도서관의 소장 자료뿐 아니라 웹 자원까지 적용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링크드 데이터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로서의 주제명표목의 개방과 공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1, 1). 이 연구는 주제명표목과 관련한 이러한 데이터 환경을 고려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에서 한인에 대한 용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인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연구에서 한인에 대한 용어를 조사하여, 이 용어가 실제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에 대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관련 용어들을 조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구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타 연구성과물보다 최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디아스포라 관련 학술논문을 활용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KCI) 등재(후보) 학술지 중 논문제목, 키워드, 초록에 용어 ‘디아스포라’가 최소 1회 이상 포함된 학술논문의 검색 결과에서 이 논문들이 출판된 학술지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학술지에서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의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의 학술지를 선정하였으며, KCI에서 이 3개의 학술지가 출판한 전체 논문을 검색하여 저자키워드 중 한인과 관련된 용어를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한인과 관련된 용어가 이 3개 학술지 논문(KCI에서 제공하는 전체 논문)의 논문 제목, 키워드, 초록에서 사용된 빈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저자 키워드로 추출한 70개 한인 관련 용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용어를 조사하기 위하여 313개 논문의 본문을 검토하여 한인 관련 용어를 추출하였다. 넷째, 이렇게 파악된 용어가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와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과 일본 국회국회도서관(国会図書館, National Diet Library, NDL)의 주제명표목표에서 이 용어를 조사하였다.

3. 선행연구

주제명표목표 중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는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제명표목표로, LCSH를 사용하는 개별 국가 도서관에서는 LCSH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국 관련 주제에 대하여 LCSH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Lilley(2015)는 LCSH를 사용하는 뉴질랜드도서관에서 마오리족(Māori)과 관련한 주제명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자원에 대한 기술과 접근이 충분하지 않음을 문제로 제기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질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과 도서관 관계는 마오리족 전통과 관련된 주제 표목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LCSH를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Bone과 Loughheed(2018)는 캐나다의 Association for Manitoba Archives(AMA)가 매니토바 전역에서 발견된 기록 유산을 기술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MAIN(Manitoba

Archival Information Network)의 콘텐츠에 대한 주제명으로 LCSH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캐나다 원주민들이 만든 자료 또는 이들에 대한 자료를 기술할 때 LCSH 용어가 부적절 또는 부족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CSH를 수정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LCSH의 용어가 캐나다 원주민에 대해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어 및 구조의 변경과 지리 구분을 추가 세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Handis(2020)는 LCSH를 사용하는 그리스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Greece, NLG)이 사용하는 그리스 관련 주제 표목에 대하여 LCSH와 그리스국립도서관 주제명표목(NLGSH)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그리스 관련 주제인 고대 신의 이름과 종교, 비잔틴제국 관련 용어, 그리스 지역명과 관련된 용어의 표목을 NLG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는 예를 제시하였다.

LCSH의 특정 민족과 관련한 용어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연구도 있다. Biswas(2018)는 인도에서 온 인디언 민족 집단에 대하여 사용하는 'East Indian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이 용어의 사용은 WorldCat의 검색 결과에서도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가 부족하므로 LCSH에서 이 용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Martens(2006)는 National Indian Law Library(NILL)의 소장 자료 특히 미국 연방 인디언 법 및 부족법과 관련한 정보 자원에 대하여 이 도서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도서관 자체 주제명표목 대신 LCSH를 채택하고 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을 보완자료로 사용하면서 진행한 원주민법 관련 주제명표목을 세분 및 보완한 과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NILL은 LCSH에서 부족한 주제명표목을 자체도서관 주제명표목으로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LCSH에는 없는 원주민법과 관련한 주제명들을 추가하여 사용하였으며, LC의 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NACO)에 참가하여 미국의 부족 이름에 대한 전거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제명표목표와 관련한 연구는 초기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여 제안한 연구가 있었으며, 이후 LCSH를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등 개별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연구, 주제명표목의 표목구조 및 주제명표목을 활용한 연구가 있었다.

초기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한 연구로 이재철(1961)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중소규모 대학 도서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로 된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였으며, 손정표(1971)는 음악자료 및 녹음테이프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중소규모 도서관을 위한 주제명표목표(안)을 제안하였다.

개별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연구로 먼저 LCSH의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연구로 윤정옥(2001), 김정현과 문지현(2009), 김정현(2010)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NDLSH)의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로는 문지현과 김정현(2011), 문지현(2012), 김정현(2021)의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용어 품질 또는 검색 효율 개선과 관련한 연구로는 정연경(2014), 최윤경과 정연경(2014), 백지원과 정연경(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주제명표목표의 표목구조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주성과 김태수(1995), 김태수(1997)의 연구가

있으며, 학술지의 논문에 부여된 키워드와 주제명표목을 비교하여 색인시스템의 구축이나 주제명표목 선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유영준(2009), 배인화(2018)의 연구가 있다.

주제명표목표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LCSH에 대한 각 지역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LCSH를 사용하는 각국의 도서관들이 자국의 원주민 및 자국 관련 주제명에 대한 더 구체적이며 추가적인 주제명의 필요에 의한 LCSH의 수정 및 보완을 시도한 연구들을 수행한 반면, 국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된 용어의 품질과 관련된 연구가 유일하게 수행되었을 뿐이다. 양질의 주제명표목표는 단순히 도서관 소장 자료를 넘어 국가 지식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강력한 주제 접근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국내 도서관계의 주제 접근 인프라 지원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구축 및 유지되어야 한다(최윤경, 정연경, 2014, 75-76).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한인과 관련한 다양한 명칭에 대한 분석 및 이를 통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해당 용어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한인 관련 용어 개요 및 사용 현황

1. 한인 관련 용어 개요

디아스포라에서 다루는 민족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17307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7호)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정의)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재외동포 범위

자격	자격 상세	명칭
대한민국 국민	①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사람	·
	②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③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
	⑤ 또는 ④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⑥ ⑤'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⑦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표 1〉을 보면 재외동포의 범위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및 그 직계비속, 그리고 혈통이 한민족인 사람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외동포는 한국인(韓國人)¹⁾ 중 한인(韓人)²⁾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인과 관련된 용어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표 2〉 참조), 법률과 한인 관련 용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독으로 ‘한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한인 관련 용어*

용어	내용	비고
교민(僑民)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룰 수 있다.	이민 1세 지칭. 모국과의 지속적인 연대감 내포하므로 이민 2, 3세 지칭에 부적절
동포(同胞)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국적에 상관없이 핏줄이 같은 사람들로 민족을 포괄하는 용어.
교포(僑胞)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동포>교포
재외한인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동포에 비해 가치중립적인 용어	한인 자체에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재외한인은 중복적인 의미가 있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2a)과 윤인진(2004, 21)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

**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한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로, 이 지역에 84.3%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재외동포 다수거주국가 현황(2018. 12.)*

순위	국가명	인원(명)	비율(%)	순위	국가명	인원(명)	비율(%)
1	미국	2,546,982	34.0	13	영국	40,770	0.5
2	중국	2,461,386	32.8	14	뉴질랜드	38,114	0.5
3	일본	824,977	11.0	15	프랑스	29,167	0.4
4	캐나다	241,750	3.2	16	아르헨티나	23,063	0.3
5	우즈베키스탄**	177,270	2.4	17	인도네시아	22,774	0.3
6	베트남	172,684	2.3	18	싱가포르	21,406	0.3
7	러시아**	169,933	2.3	19	말레이시아	20,861	0.3
8	호주	167,331	2.2	20	태국	20,200	0.3
9	카자흐스탄**	109,923	1.5	21	키르기스공화국**	18,515	0.2
10	필리핀	85,125	1.1	22	우크라이나**	13,070	0.2
11	브라질	48,281	0.6	기타 국가 동포 수		195,141	2.6
12	독일	44,864	0.6	전체 재외동포수 (193개국)		7,493,587	100.0

* 외교부 재외동포 다수거주국가 현황(출처: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9/contents.do) 재구성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있는 재외동포는 488,711명(6.5%)임

- 1)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민족의 혈통과 정신을 가진 사람(표준국어대사전, 2022b),
- 2) 한국인으로서 특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2022c).

한인은 거주하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다르게 불리는데, 각 연구에서 언급되는 시대, 지역, 국가 등에 따라 또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인이 거주하는 주요 국가 및 지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거주국에 따른 한인 관련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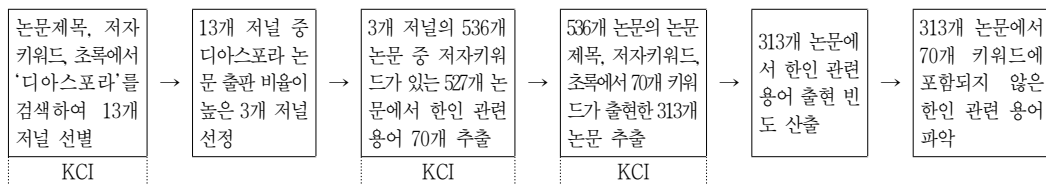
거주국	호칭
미국	재미동포, 재미교포: 한국인 관점
	한국계미국인: 1929년 ‘출신국적법(National Origins Act)’에서 국가별 인민자수를 할당한 관례에 따라 이민 온 미국인이라는 뜻에서 ‘미국인’이라는 국적을 강조한 것
	재미한인: 거주 국가별 구분
중국	재중동포, 중국동포, 중국교포: 한국인 관점
	조선족: 재중한인 자칭 & 중국정부 공식 명칭.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조선인 및 그 자손, 중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또는 그들 후대 중에서 중국행정당국의 승인을 거쳐 ‘조선족’으로 분류된 사람(중국국적을 가진 조선민족)
	재중한인: 거주 국가별 구분
일본	재일동포, 재일교포, 일본동포: 한국인 관점
	재일조선인: 한반도에서 유래하여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 구 중주국인 일본의 영역에서 생활하게 된 민족 집단의 총칭. 정치적으로 무국적 주체, ‘조선’은 북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지역을 표현하는 민족적 기호
	재일한국인: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재일한국·조선인: 외국인등록증 국적란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과 ‘조선’을 병렬한 것(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 1947년 일본 외국인 등록령에 따라 외국인 등록시 사용한 국적표시)
	재일(在日), 자이니치: 재일한인 지칭. ‘일본에 있다’의 뜻만 있어, 일본사회에서 특수한 위치와 입장을 표현. ‘조선’과 ‘한국’이라는 국적으로부터의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재일코리아인: 일본의 ‘재일’ 스스로가 ‘세계 속의 코리아인’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정체성을 지닌 용어보다 더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
	재일한인: 거주 국가별 구분
러시아 / 중앙아시아 국가	고려사람: 현지인 자칭
	고려인: 구소련 지역의 한인
	사할린한인: 일제하에서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사할린에 버려둔 동포와 그 자손
	재소한인, 재중앙아시아한인, 재러(시아)한인, 사할린한인: 거주 국가(지역)별 구분

* 김명지(2016, 48), 金亨洙(2010, 62-76), 박찬용(2018, 57), 윤인진(2004, 22-23), 이상해(2005, 137), 이진해(2021, 261), 황유복(2013, 111-117)을 참조하여 재구성

한인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관점이나 구분 기준 등에 따라서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용어는 의미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인 관련 용어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인 관련 논문에서 이 용어들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조사해 보았다.

2. 한인 관련 용어 사용 현황

한인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한인diaspora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인 관련 용어 사용 현황 조사 과정

먼저 한인diaspora 한인범주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서 논문제목, 키워드, 초록에 용어 '디아스포라'가 포함된 학술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이 논문들을 출판한 학술지 중 상위 13개(최소 20편 이상의 논문 출판) 학술지를 선별하였다. 이들 학술지 중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이 전체 출판 논문 중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의 학술지(디아스포라 연구, 재외한인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를 선정하였다(<표 5> 참조).

<표 5> 디아스포라 관련 KCI 등재(후보) 학술지 및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 비율

순번	학술지명	논문수(건)		검색건 수	디아스포라 논문 비율(%)	순번	학술지명	논문수(건)		검색건 수	디아스포라 논문 비율(%)
		연평균	총논문					연평균	총논문		
1	디아스포라연구*	16	180	40	22.2	8	한중인문학연구	52	1,050	25	2.4
2	한국동북아논총	54	1,078	35	3.2	9	국제한인문학연구*	16	187	24	12.8
3	통일인문학	33	437	31	7.1	10	한민족문화연구	44	747	22	2.9
4	현대소설연구	52	1,038	26	2.5	11	인문사회21	660	4,622	22	0.5
5	재외한인연구*	18	169	25	14.8	12	비교한국학	29	576	21	3.6
6	한국문학논총	40	821	25	3.0	1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1,260	21	1.6
7	현대문학이론연구	52	1,044	25	2.4	* 분석대상 학술지					

다음으로 선정된 3개 학술지가 출판한 전체 논문을 KCI에서 검색하여, 이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536편 중 저자 키워드가 입력된 527편의 논문의 저자 키워드에서 디아스포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한인과 관련한 용어를 직접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527편의 논문 중 206편의 논문³⁾에서 한인 관련 용어 70개가 추출되었다. 70개의 한인 관련 용어를 거주 국가 별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3) 70개 한인 관련 용어 추출 논문(<표 7> 참조).

〈표 6〉 한인 관련 용어 추출 현황(저자 키워드 출현 용어)

거주 국/지역	용어
중국	재중한인, 중국동포, 조선족, 중국조선족, 만주조선인, 재만조선인, 아라디조선족, 동아시아조선족, 글로벌조선족, 칭다오조선족, 동북조선족, 연변조선족
일본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한인, 재일한민족, 재일, 자이니치, 재일코리안, 재일제주인
러시아 / 중앙아시아 국가	소련한인, 극동한인, 고려인, 고려사람, 고려인동포, 재소고려인, 독립국가연합고려인, 우즈베크고려인, 우즈베키스탄고려인, 카자흐스탄고려인, 중앙아시아고려인, 연해주한인, 사할린한인,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사할린영주귀국자, 무국적고려인, 유라시아코리안
미국 / 캐나다	미국한인, 미주한인, 재미동포, 한국계미국인, 미국내한인, 뉴욕한인, 재미한인미국거주한인이민여성
독일	독일동포, 귀환재독한인
중남미	중남미한인, 칠레한인, 재브라질한인, 브라질한인
한국	재한조선족
기타	한인, 재외한인, 재외한인동포, 한국인이민자, 한국사람, 해외동포, 조선민족, 해외한인, 교민, 한인동포, 한인이민자, 재외국민, 한인diaspora, 한민족, 재외동포, 조선인, 귀환재외동포, 귀환동포

추출된 한인 관련 용어 70개가 논문에 사용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3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제목, 키워드, 초록에 사용된 빈도를 조사하였다. 학술지의 3종에서 수집한 논문 536편 중 저자 키워드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논문이 9편, 초록이 없는 논문이 72편이 존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지사항의 항목만을 제외하고 키워드 검색을 시행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공백에 따른 의미 변화나 저자의 띄어쓰기 오류 등을 감안하여, 서지사항 데이터에 등장하는 공백을 전부 삭제하고, 검색에 사용할 키워드 역시 공백을 삭제해 오류를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총 536개 논문 중 313개의 논문에서 한인 관련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현황을 정리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학술지에 따른 키워드 및 조사 논문 통계 현황

학술지명	70개 키워드 추출 논문				70개 키워드 사용 현황 조사 논문				
	전체 논문수	저자 키워드 배정 논문수	한인 관련 용어 키워드 배정 논문		조사 대상 논문수			한인 관련 용어 사용 논문수	비율(%)
			수(건)	비율(%)	전체	키워드 누락	초록 누락		
diaspora연구	180	180	65	36.1	180	0	6	99	55.0
재외한인연구	169	161	108	63.9	169	8	13	146	86.4
국제한인문학연구	187	186	33	17.6	187	1	53	68	36.4
합 계	536	527	206	·	536	9	72	313	58.4

70개 한인 관련 용어가 3개 학술지의 313개 논문의 제목, 저자 키워드, 초록에 사용된 빈도는 〈표 8〉과 같으며,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는 “*”로 표시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한인’으로 478회이며, 조선족 372회, 고려인이 316회 등으로 순으로 사용되었다.

〈표 8〉 한인 관련 용어 사용 현황

한인 관련 용어	빈도	한인 관련 용어	빈도	한인 관련 용어	빈도	한인 관련 용어	빈도
한인*	478	재외국민	23	연해주한인*	7	재외한인동포*	3
조선족	372	한인이민자*	18	뉴욕한인*	7	소련한인*	3
고려인	316	재미동포	16	귀환재외동포*	7	미국내한인*	3
재외동포	164	고려인동포*	15	중남미한인*	6	글로벌조선족*	3
조선인	122	중앙아시아고려인*	14	조선민족*	6	귀환동포*	3
한민족	105	재중한인*	12	무국적고려인*	6	재일교포	2
중국조선족	96	재일제주인*	12	독립국가연합고려인*	6	재만조선인*	2
중국동포	75	재브라질한인*	12	고려사람	6	유라시아코리아*	2
재일한인*	72	우즈베키스탄고려인*	11	해외동포	5	사할린영구귀국자*	2
재외한인*	71	미주한인*	10	한국사람	5	동아시아조선족*	2
재일코리아*	61	한인동포*	8	카자흐스탄고려인*	5	재소고려인*	1
재미한인*	50	한국계미국인*	8	재일*	5	우즈베크고려인*	1
사할린한인*	37	칠레한인*	8	동북조선족*	5	아라디조선족*	1
한인디아스포라*	31	자이니치*	8	극동한인*	5	사할린영구귀국동포*	1
연변조선족	30	미국한인*	8	한국인이민자*	4	미국거주한인이민여성*	1
재일동포	29	귀환재독한인*	8	청다오조선족*	4	만주조선인*	1
재한조선족*	28	교민	8	재일한민족*	3	독일동포*	1
브라질한인*	28	해외한인*	7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에 없는 용어			

다음으로 저자 키워드로 추출한 70개 한인 관련 용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용어를 조사하기 위하여 313개 논문의 본문을 검토하여 한인 관련 용어를 추출하였다(〈표 9〉 참조). 본문 검토를 통하여 추가로 추출된 용어를 보면, 각 지역 또는 국가 뒤에 ‘디아스포라’를 붙인 용어들이 한인 전체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모두 등장하였으며, 멕시코한인, 호주한인, 영국한인, 필리핀한인, 북미한인과 같이 저자 키워드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또는 국가와 관련한 용어들이 나타나, ‘한인’이라는 용어가 각 국 또는 지역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한인 관련 용어 추출 현황(본문 출현 용어)

거주 국/지역	용어
중국	재중한국인, 재중동포, 중국거주조선인, 재중조선족, 재중국조선족, 흑룡강성조선인, 중국한인디아스포라
일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교포 한국인, 재일한국인, 일본동포, 뉴커머, 재일디아스포라
러시아 / 중앙아시아 국가	러시아한인, 사할린 출신 한인, 고려인동포, 재소동포, 소비에트고려인, 연해주고려인, 원동고려인, 재정러시아한인, 사할린고려인, 고려인디아스포라
미국 / 캐나다	북미한인, 하와이한인, 남가주한인, 재미디아스포라
중남미	멕시코한인
호주	호주한인
영국	영국한인
필리핀	필리핀한인
기타	세계한인, 한국계입양인, 해외한민족디아스포라, 코리아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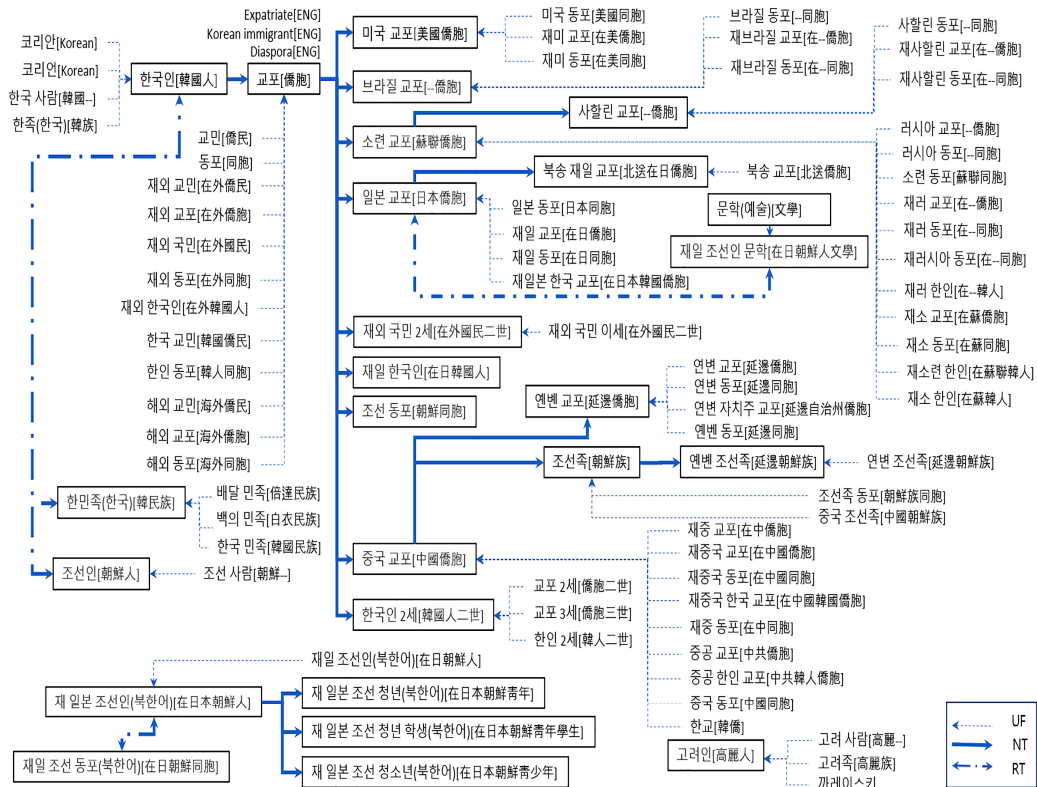
한인 관련 용어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관련 연구들에서 한인 관련 용어들에 대해 정의하는 것(〈표 4〉 참조)보다 국가 및 지역명과 결합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훨씬 더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한인’이라는 용어는 단독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국가 또는 지역명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예: 재외한인, 재미한인, 재중한인, 재일한인 등)도 많았다. 그리고 주요 국가 및 지명과 결합하여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예: 중국한인디아스포라, 재일디아스포라, 고려인디아스포라, 재미디아스포라, 코리안디아스포라 등)가 사용되고 있었다.

III. 주제명표목표 한인 관련 주제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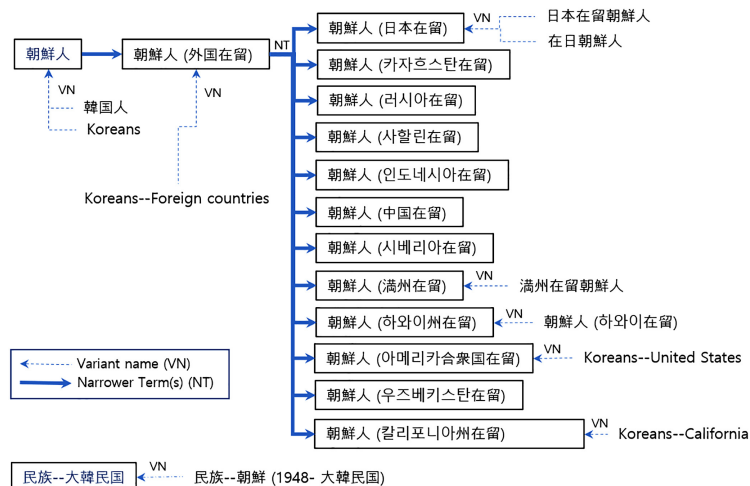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년 작성된 주제명 검색요어집을 바탕으로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21, 1).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는 국가전거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주제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앙도서관, 2022).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에서 한인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주제명표목으로 사용되는 우선어로 ‘교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포는 ‘한국인’의 하위어(narrower term)이다. 교포의 하위개념어로 ‘미국 교포’와 ‘브라질 교포’, ‘소련 교포’, ‘일본 교포’, ‘재외국민 2세’, ‘재일 한국인’, ‘조선 동포’, ‘중국 동포’, ‘한국인 2세’를 두고 있고, 이어서 ‘소련 교포’는 ‘사할린 교포’를, ‘일본 교포’는 ‘북송 재일 교포’를, ‘중국 교포’는 ‘옌벤 교포’와 ‘조선족’을 다음 하위개념어로 두고 있다. ‘고려인’은 한국인 및 교포와는 별도의 주제명으로 있으며, ‘재일본 조선인’은 북한어로 역시 별도의 주제명으로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한인과 관련 있는 주제명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는 2010년부터는 Web 버전의 국립국회도서관 건명 표(『Web版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 Web NDLSH)를 제공하였고, 2011년부터는 Web NDLSH에 개인명, 단체명 등의 전거데이터를 추가해 기능을 확장한 Web NDL Authorities를 제공하고 있다(国立国会図書館, 2022).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Web NDL Authorities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주제명으로 ‘朝鮮人’을 표목으로 사용 중이며, ‘韓國人’은 표목의 이형(variant name)로 사용하고 있다. 해외 거주 조선인에 대한 표목은 ‘朝鮮人 (外国在留)’이며, ‘朝鮮人 (거주 국가 또는 지역)’의 형식으로 외국 또는 국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표목을 하위어(NT)로 두었다. 1948년 이후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표목은 ‘民族--大韓民国’이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Web NDL Authorities에서 한인과 관련 있는 주제명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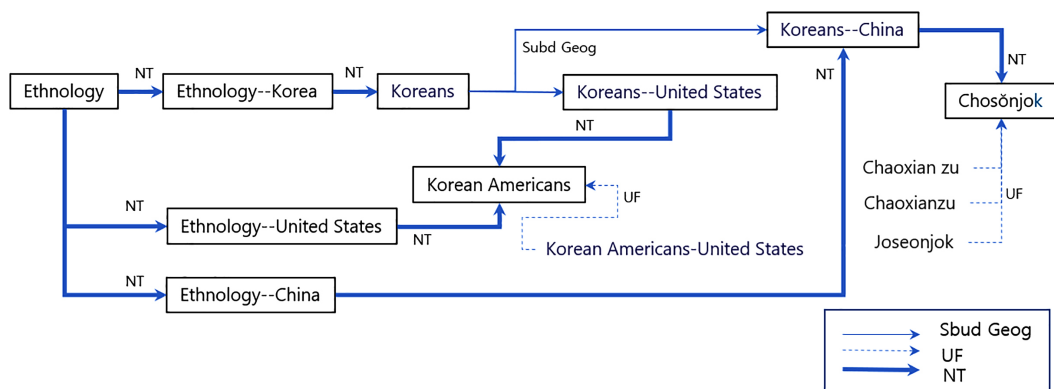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인 관련 주제명



〈그림 3〉 일본국립국회도서관 Web NDL Authorities 한인 관련 표목 (가타카나(カタカナ)는 한국어로 번역 표기)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2021년 4월에 제43판 인쇄용 PDF 파일을 LC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 LC의 Linked Data 서비스로도 검색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쇄용 PDF 파일에서 한인과 관련된 주제명을 조사하였다. LCSH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관련된 주제명은 'Koreans'에 국가명이 세목으로 부가되어(예: Koreans--United States 등) 각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주제명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인쇄용 PDF에서는 미국 및 중국이 세목으로 추가된 주제명만 있으나, LC의 Linked Data 서비스에는 전거레코드가 생성된 모든 미 의회도서관 주제 표제가 포함되어(Library of Congress, 2022), 더 다양한 국가가 지리 세목으로 추가된 한인 관련 전거레코드가 생성되어 있다.



〈그림 4〉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인 관련 주제명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목에서 한인 관련 용어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은 국가명을 부기하여 세계 각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구분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국가명을 사용하여 각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재외 국민 2세', '조선 동포', '한국인 2세'와 같이 다른 한인들에 대한 주제명과는 다른 주제명도 있었다. 이 중 '재외 국민 2세'는 이 연구에서도 키워드로 추출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주제명 검색에서도 창작물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포'와 '동포'를 우선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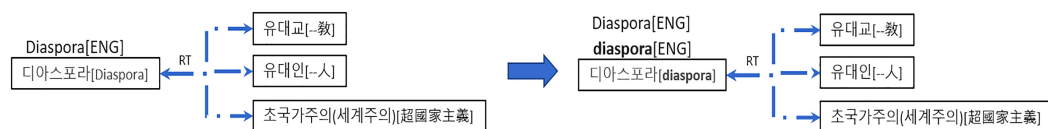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한인 관련 주제명에 대한 분석과 국내 한인diaspora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인 관련 용어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한인 관련 주제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인 관련 주제명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기존의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에서 한인 관련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제명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포와 동포, 교민, 한인 중 한인이 의미상 적합한 용어로 파악되었으나(〈표 2〉 참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에서는 이미 ‘교포’를 우선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영어 표기인 ‘Diaspora’의 표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대문자 ‘Diaspora’는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소문자 ‘diaspora’는 다양한 이산의 백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이미림, 2014, 19). 따라서 ‘교포’의 영문 표기 중 ‘Diaspora’는 소문자 ‘diaspora’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그림 6〉의 ‘◆ 표기 변경’ 부분 참조).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는 ‘디아스포라’가 우선어로 있으며, 이 주제명의 영문 표기가 대문자 ‘Diaspora’이다. 그리고 이 주제명을 사용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단지 유대인과 그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산의 백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확장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영문표기에서 소문자 ‘diaspora’를 추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디아스포라’ 개선안

두 번째 제안은 우선어와 동위관계에 있는 비우선어를 추가하는 것이다. 비우선어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동의어가 있는 경우 우선어로 채택하지 않은 용어를 비우선어에 기술하여 검색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1, 36). 이 연구에서는 주제명으로 사용되는 우선어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지만, 비우선어로 현재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가되는 용어는 우선어 ‘교포’의 비우선어로 ‘한인[韓人]’과 ‘한인 디아스포라’, ‘재외한인[在外韓人]’, ‘코리언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우선어 ‘미국 교포[美國僑胞]’의 비우선어로 ‘재미한인[在美韓人]’, 우선어 ‘소련 교포[蘇聯僑胞]’의 비우선어로 ‘사할린 한인[--韓人]’, 우선어 ‘일본 교포[日本僑胞]’의 비우선어로 ‘재일 한인[在日韓人]’, ‘재일 조선인[在日朝鮮人]’, 우선어 ‘중국 교포[中國僑胞]’의 비우선어로 ‘재중 한인[在中韓人]’이다(〈그림 6〉의 ‘★ 추가’부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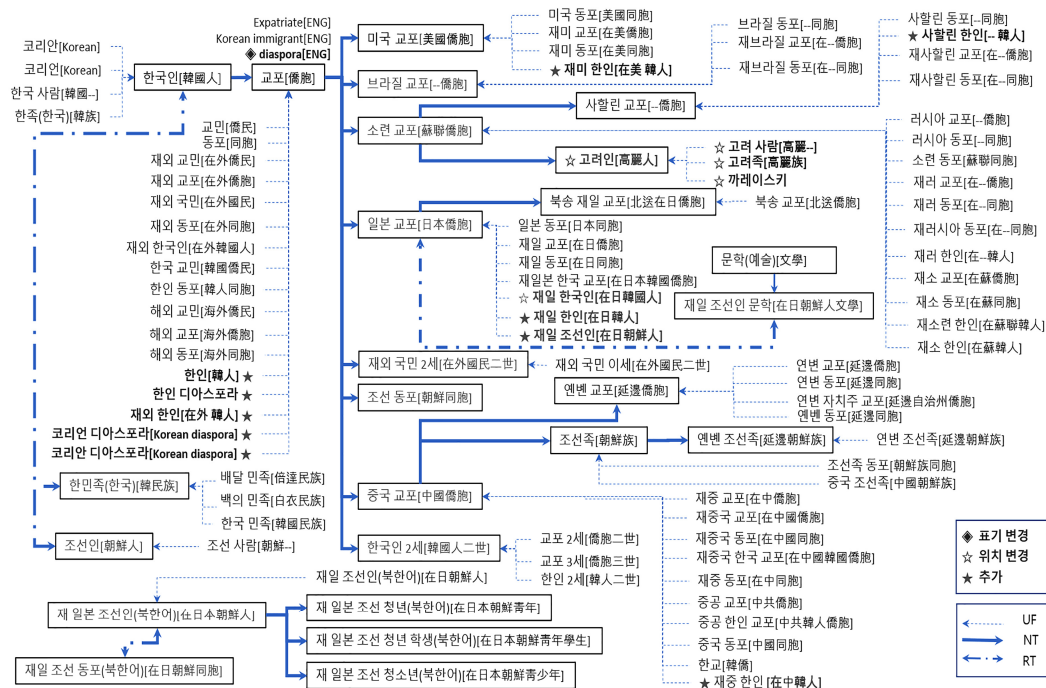
추가되는 용어 중 ‘한인[韓人]’과 ‘한인 디아스포라’, ‘재일 한인[在日韓人]’, ‘재외 한인[在外韓人]’, ‘재미한인[在美韓人]’, ‘사할린 한인[在韓人]’, ‘한인 디아스포라’, ‘재중 한인[在中韓人]’은 이 연구에서 조사한 한인 관련 용어 70개의 사용 현황 조사에서 모두 상위 15개 안에 포함되는 용어로, 이 중 ‘한인’은 특히 478회 사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조사되었다(〈표 7〉 참조).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재외한인을 비롯하여 재외동포, 코리안 디아스포라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므로(홍면기, 2014, 431),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와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를 추가하였다.⁴⁾ ‘재일 조선인[在日朝鮮人]’은 연구대상 논문의 본문을 검토하여 추출한 한인 관련 용어로(〈표 8〉 참조), ‘재일 조선인’이란 주로 특별영주권 소지자인 한인과 그 후손들을 포함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한반도에 민족적 기원을 두고 현재 일본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조선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전체를 의미 한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은 조선적, 한국적, 일본적 소지자를 모두 포괄하며, 국적과 형통보다는 심리적 행동적 성격의 총체로서의 ‘재일’의 에스니시티를 공유하는 집단에 가깝다(지은숙, 2011, 43). 특히 일본국립 국회도서관의 Web NDL Authorities에서 ‘한국인’에 대한 표목으로 ‘조선인’을 사용하고 있으며(〈그림 3〉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재일 조선인 문학’을 우선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본 교포’의 비우선어로 ‘재일 조선인[在日朝鮮人]’을 추가하였다.

세 번째 제안은 기존 주제명 표목에서 우선어 ‘교포[僑胞]’와는 별개로 있던 ‘고려인[高麗人]’을 ‘소련 교포[蘇聯僑胞]’의 하위개념어(NT)로 이동하는 것이다(〈그림 6〉의 ‘☆ 위치변경’ 부분 참조). 고려인에 대하여 고려인동포법에서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제2조(정의)). 이 법에 따르면 고려인은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주한 한인 및 그 친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에서 ‘고려인’의 범위 주기에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2). 따라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에서 ‘교포’와는 별개로 있는 ‘고려인’(〈그림 2〉 참조)을 ‘소련 교포’의 하위개념어로 이동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우선어로 있던 ‘재일 한국인[在日韓國人]’을 ‘일본 교포[日本僑胞]’의 비우선어로 이동하는 것이다(〈그림 6〉의 ‘☆ 위치변경’ 부분 참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에서 ‘재일 한국인’의 영어표기가 ‘Koreans who grew up in Japan’이다. 앞서 언급한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의미로 본다면, ‘재일 한국인’ 역시 ‘일본 교포’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4) 이 두 용어를 모두 추가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우선어 ‘한국인[韓國人]’의 비우선어로 ‘코리안[Korean]’과 ‘코리언[Korean]’ 둘 모두 있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검색에서 ‘재일 한국인’의 주제명이 부여된 관련 창작물이 132건 검색되어 이미 상당량의 정보가 존재하므로, 만약 현재 우선어로 ‘재일 한국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교포’와는 다른 차이에 대하여 범위 주기⁵⁾ 등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6〉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인 관련 주제명 제안

V. 결 론

Beall(2006, 44)은 수천 개의 다양한 민족 중 다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부터 상호 참조가 있는 통제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민족과 관련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은 LCSH와 같은 통제된 어휘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 각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이주 시기 및 거주 국가

5) 범위 주기란 중복 의미를 가진 개념에 대하여 색인으로 사용될 때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부가 설명이며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는 색인자와 탐색자에게 주제명의 적용 범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동형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하여 부기하는 한정어와는 다르다(국립중앙도서관, 2021, 30).

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인에 대한 이러한 명칭들은 정보자료에도 반영되어, 도서관 자료에서 사용되는 한인에 대한 명칭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인디아스포라 연구에서 한인과 관련된 용어를 추출하여 그 사용빈도를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한인 관련 주제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한인 관련 주제명에 대한 개선안은 기존 체제를 가능한 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기존 주제명의 변경 및 사용빈도가 낮은 용어의 추가 등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교포'의 영문 표기 중 'Diaspora'는 소문자 'diaspora'로 변경하는 것과, 주제명 중 '디아스포라'에 대한 영문표기에서 소문자 'diaspora'를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우선어와 동위관계에 있는 비우선어를 추가하였다. 추가되는 용어는 우선어 '교포'의 비우선어로 '한인[韓人]'과 '한인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在外韓人]', '코리언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우선어 '미국 교포[美國僑胞]'의 비우선어로 '재미 한인[在美韓人]', 우선어 '소련 교포[蘇聯僑胞]'의 비우선어로 '사할린 한인[韓人]', 우선어 '일본 교포[日本僑胞]'의 비우선어로 '재일 한인[在日韓人]', '재일 조선인[在日朝鮮人]', 우선어 '중국 교포[中國僑胞]'의 비우선어로 '재중 한인[在中韓人]'이다.

셋째, 기존 주제명 표목에서 우선어 '교포[僑胞]'와는 별개로 있던 '고려인[高麗人]'을 '소련 교포[蘇聯僑胞]'의 하위개념어(NT)로 이동하였고, 우선어로 있던 '재일 한국인[在日韓國人]'을 '일본 교포[日本僑胞]'의 비우선어로 이동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인범주와 관련된 용어는 KCI에서 디아스포라로 검색된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에서 추출한 것으로, 실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포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한인디아스포라 관련 학술지에서 추출한 한인 관련 용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한인 관련 주제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인 관련 주제명 전체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은 다수의 전문가 활용의 검증 등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칭: 고려인동포법). 법률 제11690호, 국립중앙도서관 (2021).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업무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22. 1. 6.). 국가전자 주제명검색. 출처: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20201000000.do>

- 김기영 (2019). 고려인 고학력 여성의 초국가주의적 선택과 전략: 이주와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3(2), 45-79.
- 김명지 (2016). 재일코리안 미술에 나타난 역사적 트라우마와 치유. *디아스포라연구*, 10(2), 79-105.
- 김정현 (2010).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47-169.
- 김정현 (2021).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한국 관련 주제명 전거데이터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49-72.
- 김정현, 문지현 (2009).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49-68.
- 김주성, 김태수 (1995). LC 주제명표목표와 시소러스의 색인어 구조 비교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1-114.
- 김태수 (1997).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4(1), 77-105.
- 문지현 (2012). 『中国分类主题词表』와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121-141.
- 문지현, 김정현 (2011). 『国立国会図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47-267.
- 박찬용 (2018).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과제 연구. *재외한인연구*, 44, 53-82.
- 배인화 (2018).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핵심어와 NLSH의 비교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백지원, 정연경 (2014).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검색 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1(1), 31-49.
- 서봉언, 이채문 (2014).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 동향. *디아스포라연구*, 8(1), 44-69.
- 손정표 (1971). 레코드의 주제명 표목표에 관한 연구. *도서관문화*, 12(6), 16-21.
- 유영준 (2009). 신학 학술지의 색인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37-156.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정옥 (2001).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56(1), 30-53.
- 이미림 (2014). 21세기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서울: 푸른사상.
- 이상해 (2005). 옛 소련 지역의 고려인 주거. *한국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37-172.
- 이영호 (2021). 냉전과 해빙의 시대 재일코리안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재일코리안 잡지 『청구(靑丘)』의 기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5(2), 7-46.

- 이재철 편 (1961). 주제명표목표. 서울: 연세대학교.
- 이진혜 (2021). 카자흐스탄의 민족, 고려인의 국가. 아시아리뷰, 11(1), 261-289.
- 장윤수 (2011).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체성 연구. 재외한인연구, 25, 7-40.
- 정연경 (2014). 주제 접근의 다양성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171-185.
- 지은숙 (2011).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본 재일조선인 여성의 결혼문제: 30대 여성들의 결혼활동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5, 41-78.
- 최석두 (2002).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최윤경, 정연경 (2014).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고품질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75-95.
- 표준국어대사전 (2022a, 1. 6.). 출처: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표준국어대사전 (2022b, 1. 6.). 한국인. 출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표준국어대사전 (2022c, 1. 6.). 한인. 출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67703&searchKeywordTo=3
- 홍면기 (2014). 재외한인 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미래를 위한 '재외한인 비전 하우스'를 세우자. 재외한인연구, 34, 429-457.
- 황유복 (2013). '조선족'은 누구인가?: 조선족의 정의 및 개관. 한중미래연구, 창간호, 111-128.
- Beall, J. (2006). Ethnic groups and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Colorado Libraries, 32(4), 37-44.
- Biswas, P. (2018). Rooted in the past: use of "East Indians" in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6(1), 1-18.
- Bone, C. & Loughheed, B. (2018).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related to indigenous peoples: changing LCSH for use in a Canadian archival contex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6(1), 83-95.
- Handis, M. W. (2020). Greek subject and name authorities, and the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8(2), 107-126.
- Library of Congress (2022, January 8).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Available: <https://id.loc.gov/authorities/subjects.html>
- Lilley, S. C. (2015). Ka Pō, Ka Ao, Ka Awatea: the interface between epistemology and Māori subject heading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3, 479-495.
- Martens, M. (2006). Creating a supplemental thesaurus to LCSH for a specialized collection: the experience of the National Indian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98(2), 287-297.

Available: <https://advance.lexis.com/api/document?collection=analytical-materials&id=urn:contentItem:4K2H-NFR0-00CW-006B-00000-00&context=1516831>.
Safran, W.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 83-99.
金亨洙 (2010). 歴史的視座から見る「在日」の呼称問題. *國際文化研究*, 16, 57-70.
国立国会図書館 (2022. 1. 6.). 分類、件名、ジャンル・形式用語. 出處:
https://www.ndl.go.jp/jp/data/catstandards/classification_subject/index.html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In hwa (2018). A Comparative Study on 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 (NLSH) and Keywords in Academic Journal: Focusing 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Baek, Ji-Won &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n improving access & retrieval syste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1(1), 31-49.
- Choi, Sukdoo (2002). A Study on Development of 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Choi, Yoon Kyung &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n improvements for high quality in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list.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75-95.
-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n varieties of subject access and usabiliti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4), 171-185.
- Hong, Myeonki (2014). New direction and tasks for the network of overseas Koreans: building a 'Vision House of Overseas Koreans' for the future. *Studies of Koreans Abroad (SKA)*, 34, 429-457.
- Huang, You-Fu (2013). Who is "Chosŏnjok"? : definition and overview of the Chosŏnjok. *Korea Journal of Chinese Affairs*, 1, 111-128.
- Jang, Yoon-Soo (2011). A study on the identity of Korean diasporic literature. *Studies*

- of Koreans Abroad (SKA), 25, 7-40.
- Jee, Eunsook (2011). Changing marriage patterns among Korean women in Japan in the era of diaspora: with an emphasis on the activities for marriage ('Konkatsu') among those in their 30s. *Studies of Koreans Abroad (SKA)*, 25, 41-78.
- Kim, Hyongsu (2010). On appellation of Korean minority in Japan: with a historical point of view. *Journal of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16, 57-70.
- Kim, Jeong-Hyen (2010).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147-169.
- Kim, Jeong-Hyen (2021). An analysis of subject authorities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3), 49-72.
- Kim, Jeong-Hyen & Moon, Ji-Hyu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al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49-68.
- Kim, Joo-Sung & Kim, Tae-Soo (1995).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s of indexing languages between LC subject headings and thesauru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111-114.
- Kim, Ki Young (2019). A choice and strategy transnational of highly-educated Koryuin migrant women: focus on migrant and the education of children. *Journal of Diaspora Studies*, 13(2), 45-79.
- Kim, Myungji (2016). The historical trauma and recovery in art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Journal of Diaspora Studies*, 10(2), 79-105.
- Kim, Tae-Soo (1997).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heading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4(1), 77-105.
- Lee, Jai Chul ed. (1961). *List of Korean Subject Headings*. Seoul: Yonsei University.
- Lee, Jinhye (2021). The contemporary status of the ethnic group in Kazakhstan and the Koryoin's Nation. *Asia Review (SNUACAR)*, 11(1), 261-289.
- Lee, Mi-Rim (2014). *Multiculture and Strangers of the 21st Century Korean Modern Novels*. Seoul: Prunsasang.
- Lee, Sang Hae (2005). The residence of Goryeoin in the Soviet Union. *The Asia- Pacific Network for Housing Research Conference Book*, 137-172.

- Lee, Young ho (2021). Zainichi Koreans and Korean diaspora in the Cold War and Thaw Eras: focused on articles from 『Seikyu(靑丘)』 the Zainichi Korean magazine. *Journal of Diaspora Studies*, 15(2), 7-46. <https://doi.org/10.22735/JODS.2021.15.2.7>
- Moon, Ji-Hyun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CCT and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121-141.
- Moon, Ji-Hyun & Kim, Jeong-Hyen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China in the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47-267.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1). *Subject Headings Work Guidelines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2, January 6). National Authority Subject Search. Available: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20201000000.do>
- Park, Chan-Yong (2018). A study on the return and policy of Sakhalin Koreans. *Studies of Koreans Abroad (SKA)*, 44, 53-82.
- Seo, Bongeon & Lee, Chaimun (2014). Keyword analyses of diaspora research and its trends in Korea. *Journal of Diaspora Studies*, 8(1), 44-69.
- Son, Jeong-Pyo (1971). A study on the subject headings for records. *KLA Journal*, 12(6), 16-21.
-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Acquisition of Legitimate Residency Status and Settlement of Koreans in the Old Soviet Union (Amended by Act No. 11690, Mar. 23, 2013).
-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22a, January 6). Available: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22b, January 6). 한국인. Available: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22c, January 6). 한인. Available: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67703&searchKeywordTo=3
- Yoo, Young-Jun (2009). Analytical study on the index terms in the theological jour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37-156.
- Yoon, Cheong-Ok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LCSH. *Doseogwan*, 56(1), 30-53.
- Yoon, In-Jin (2004). *The Korean Diaspora*. Seoul: Korea University Press.